

부활공초

< 성전보수 기금마련을 위한 기도 >

주님,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시며,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낙후된 성전을 위해,  
기도와 정성을 모아,  
성전 보수 기금 마련을 준비합니다.  
저희의 계획과 수고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협력하며,  
이 길을 함께 걷게 하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 의지하게 하소서.  
고단한 이민의 삶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안의 평안으로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금을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저희의 정성이 모여,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의 보금자리를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성전기금 현황보고 >>

No	Name	Amount	No	Name	Amount	No	Name	Amount	No	Name	Amount
1	주일학교	500	31	박재영	1,500	61	오석미	1,000	91	임소라	100
2	유스그룹	400	32	박정훈	1,500	62	오진아		92	임영자	1,000
3	반석회	2,000	33	박정희	100	63	오선아	2,000	93	장문국	1,000
4	이스트브론스웍 구역	1,167	34	박화성	1,000	64	오현아		94	장수지	1,000
5	성모회	5,000	35	방숙자	400	65	오용운	2,000	95	장중현	400
6	Vesta-Oh LLC	5,000	36	배인경	500	66	오현주 (부제님)	12,000	96	전광수	1,000
7	강식	1,200	37	백상현	1,500	67	우성현	1,000	97	정명숙	300
8	곽신규	1,000	38	백영숙	1,000	68	우영인	1,000	98	정진오	1,000
9	곽율리안나	200	39	변상민	1,000	69	유병기	3,000	99	조순자	300
10	김도용	500	40	변상원	1,000	70	육순재	5,000	100	조인	1,000
11	김삼식	1,000	41	변태용	4,700	71	윤석로 (부제님)	1,000	101	채희백	5,000
12	김성일	1,500	42	서경호	1,000	72	윤승현	1,000	102	최경하	1,000
13	김수완	5,000	43	서정근	1,500	73	윤준희	5,000	103	최영옥	1,000
14	김순옥	1,000	44	서현주	1,000	74	이광호	3,000	104	최영찬	2,000
15	김안나	1,000	45	성낙순	500	75	이기순	500	105	최완준	1,000
16	김영필	2,000	46	성낙철	1,000	76	이막동	500	106	최승웅 (부제님)	5,000
17	김정숙	500	47	성순영	500	77	이문식	1,000	107	최진호	1,000
18	김태경	600	48	성준엽	1,000	78	이보현	1,000	108	최현지	2,000
19	김진	1,000	49	손경진	300	79	이성문	1,200	109	최골롬바	300
20	나채국	1,000	50	손영렬	1,000	80	이숙희	500	110	추승호	1,000
21	나한복	1,000	51	손영수	1,000	81	이순분	500	111	토레스 은식	2,000
22	문형곤	100	52	손종철	3,000	82	이용문	2,000	112	하건철	1,000
23	민병집	2,400	53	손홍구	1,500	83	이용범 (신부님)	3,000	113	한상철	1,000
24	박규희	300	54	신준호	1,200	84	이재구	1,000	114	한크리스토퍼	1,000
25	박기호	1,000	55	안을봉	1,000	85	이재서	1,000	115	허중	1,000
26	박덕화	500	56	안청자	500	86	이종권	1,500	116	황분숙	500
27	박동준	300	57	안현정	1,500	87	이준원	100	117	황태진	3,000
28	박락준	2,000	58	양영길	1,000	88	이호용	1,000	118	익명 (2)	2,400
29	박병태	1,200	59	염기선	3,000	89	임문수	500	119	익명 (4)	40
30	박애순	500	60	오경숙	3,000	90	임성주	1,000	120	미국신자 (78)	101,400

약정금액: \$269,607.43/\$300,000 (89.87%), 납부금액: \$246,690.43/\$300,000 (82.23%)

부활 제 3주일

2026년  
4월 19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금-9:00 AM  
화-금 미사전 목주기도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edisonkcc@gmail.com  
근무시간: 수~금  
(10:30AM~4:30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오현주 요한

은퇴/종신부제  
최승웅 미카엘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염기선 베드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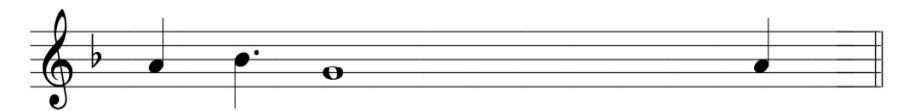
OUR LADY OF MERCY PARISH



< 이번 주 전례안내 >

# 제 1독서 사도행전 2,42-47

# 화답송 시편 118(117),2-4,13-15,22-24(© 1)



후렴.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 제 2독서 베드로 1서1,1,17-21

# 복음 환호송 루카 24,32 참조

○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음 루카24,13-35

# 성가 입당 130 봉헌 217, 210 성체 163, 151 파견 131

- \* 미사지향 (연미사)**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김원준 - 가족
  - 이종선(헤레나) - 최세레나&최미카엘
  - 성경숙(아가다) - 성안드레아
  - 오화남 - 서현주(데레사)
  - 김종호(베드로) - 허정(아나스타사)
  - 김상기(요셉) - 김정희(레지나)
  - 이광선(베드로) - 아이아린
  - 김폴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 김아가다
  - 윤동순(마리아) - 이용문(안드레아)가족
  - 이정환(가족) - 가족

- \* 미사지향 (생미사)**
  - 염은미(글라라) - 가족
  - 김영필(안토니오) - 가족
  - 황혜선(루시아) - 가족
  - 이설주(짬마)가정 - 가족
  - 최강섭(요한)의 건강회복 - 최골롬바
  - 양영길(그레고리오)
  - 박재영(요아킴) 박인자(안나) - 박정화(요셉)
  - 박정화(요셉) - 가족
  - 김태경 카타리나 - 이서형(요안나)

-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헌금.....\$1,164(134명)
  - 2차헌금.....\$275
  - 교무금.....\$2,140
  - 최영옥(4) 오경숙(3~4) 박동준(1~3) 성낙철(3~4)
  - 곽신규(3~4) 서정근(3)

**\* 성모의 날(5월10일 주일)**에는 미사중에 꽃봉헌(단체/개인), 화관증정, 성모님께 편지, 그리고 묵상글로 봉헌 드립니다.

- \* 5월 성모성월**
  - 5/3 일: 세계 평화를 위하여
  - 5/10일: 교황님과 모든 사제,부제들을 위하여
  - 5/17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하여
  - 5/24일: 모든 아픈이들을 위하여
  - 5/31일: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 < 구역회 style로 하는 성서 공부 > 최승웅(미카엘) 부제와 함께 같이 하는 성서반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30분에 있습니다. (문의 : Dr.Choi (908)812-0232)**

- \* 모든 친교 후 청소 철저**
  1. 모든 쓰레기통은 비우고 새 비닐백으로 쥘워주세요.
  2. 재활용통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고, 병, 캔, 깨끗한 종이 만 넣어주세요.
  3. 바닥 청소
  4. 성당안의 가전제품, 큰가구, 규격외의 부피가 큰 쓰레기를 버릴시에는 반드시 사무실과 상의후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세요.
  5. 성당건물을 사용한 사람은 나올때 반드시 불을 끄고 문을 잠가주세요.
  6. 성당밖에 담배꽂초를 버리지 마세요. (경당 옆 흡연 금지)

**\* 원할한 후보 제작을 위해 미사 지향 신청 및 후보 공지 사항을 매주 수요일로 마감합니다.**

- \*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하건철(안토니오) 김영필(안토니오) 염은미(글라라)
  - 곽 율리안나 김삼식(베드로) 김정선(스텔라)

- \* 빵과 포도주 봉헌**
  - 4/19 고명진 고병준 4/26 김태경 김정연
- \* 빵과 포도주 봉헌 및 친교 봉사 구역별 일정**
  - 4/19 사우스브런스위 5/17 썸머셋 6/21 에디슨
  - 7/19 올드브릿지 8/16 이스트브런스위 9/20 피스브릿지
  - 10/18 노스브런스위 11/15 랫거스 12/20 먼로 1/17 노스에디슨

**\* 2026 Bishop's Annual Appeal**  
 메타천 교구내 사목, 교육,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2026 Bishop's Annual Appeal에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본당 목표금액은 \$39,000입니다. 목표금액 달성시 초과금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됩니다.

**\* < 성모회 >** 테네시 농작 주문 받습니다.  
 문의 / 마감: 최정원 레지나 / 4월19일

**\* 2026 에디슨 성당 친선 탁구대회 (주일학교 주관)**  
 일시/장소: 4월 26일(주일) 미사 후 / 친교실 (잡가비 \$5)  
 음료 판매와 간단한 스낵 제공되오니,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피스브릿지 구역회**  
 일시/장소: 4월 19일(주일) 미사 후 / 친교실

**\* 썸머셋 구역회**  
 일시/장소: 4월 26일(주일) 미사 후 / 루이지스 피자

**\* 이스트브런스위 구역회**  
 일시/장소: 4월 26일(주일) 오후 4시 / 김순옥 자매님택

**\* 노스 에디슨 구역회**  
 일시/장소: 5월 3일(주일) 미사 후 / 친교실

**\* <성인 견진성사 예식>**  
 - 시간: 5월 31일(주일) 미사 중 성인 견진성사  
 - 견진대상: 세례성사 받고 1년이 경과한 성인  
 - 견진신청: 4월 26일 까지 신청서 성당입구에 제출  
 - 필수사항: 주일 미사 5회 참여와 견진교육 참석  
 - 견진교육: 5월 24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문의: 허정 아나스타시아

**\* 제 1독서 사도행전2,14.2 L-33**  
 오순절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유대인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지신 그분을, 여러분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어 그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어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뻐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리라. 당신께서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에게 죽음의 나라를 아니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 당신 면전에서 저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다투 조상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물렸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였고, 또 자기 몸의 소생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자기 왕좌에 앉혀 주시겠다고 하느님께서 맹세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하며 ‘그분은 저승에 버려지지 않으시고 그분의 육신은 죽음의 나라를 보지 않았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하느님의 오른쪽으로 들어 올리지신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제 2독서 베드로 1서1,17-21**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각자의 행실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살이를 하는 동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는데,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물건으로 그리된 것이 아니라, 흠 없고 티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리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뵈히셨지만,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시어,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이 하느님을 향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복음 루카24,13-35**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나?”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 계시다고 천사들이 알려 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이!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굵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새로운 주교님을 모시기 위한 기도 >**

주 예수 그리스도님,  
 영원한 대사제이시며,  
 착한 목자이신 주님,  
 저희 메타천 지역 교회에 내려주신,  
 수많은 은총에 감사하나이다.  
 저희의 제5대 교구장,  
 제임스 주교님을 보내주시어,  
 그의 여러 은사를 통해,  
 백성들을 보살피게 하셨음에 감사하나이다.  
 이제 저희 메타천 지역 교회를 위한,  
 새로운 주교 선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의 교황 레오 14세 성하께,  
 지혜로운 분별력을 주시고,  
 다음 주교님을 선발하시는 과정 중에,  
 현명한 조언자들이 함께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새로 오실 주교님이,  
 신성한 스승이신 당신을 더욱 닮게 하소서.  
 주님,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의 다음 주교님이,  
 당신과 당신의 교회를 향해,  
 불타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분이 지혜와 충실함,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중부 뉴저지 전역에,  
 신앙의 불꽃을 다시 일으키며,  
 복음을 전파하는 열정을 갖게 하소서.  
 주님의 어머니이자 저희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를 통하여,  
 새로운 주교님과, 그에게 맡겨진 양 떼를,  
 영원한 생명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소서.  
 당신은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부활 삼중 기도>**

-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주소서. 알렐루야.
  -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 기도합시다.
-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